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과 국어 능력

박중훈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시험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시험일이 되면 공무원의 출근 시간이 늦춰지고 심지어는 듣기 평가 시간에 비행기 뜨는 시간까지 조정된다. 때 교시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올해의 그 영역 시험의 난이도는 어떠했고 출제 경향은 어떠했다는 분석 기사가 실시간으로 인터넷 뉴스로 올라오고, 정답이 발표되고 나면 수험생들은 자신의 가채점 결과에 따라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거나 아쉬움의 탄식을 내뿜게 된다. 이들은 혹시 하는 마음에 1점이라도 더 건져 보려 이의신청을 하기도 하는데, 혹여 복수 정답 사태라도 일어나게 되면 온 나라가 시끌시끌해지고 급기야 출제 기관의 장이 책임을 통감하며 사임하게 되는 일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 이처럼 해마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시험이 바로 수능이다.

앞으로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될 많은 학생들은 '도대체 나라에서는 왜 수능 같은 시험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다지도 괴롭게 만드는가?'라고 생각하며 누군가를 원망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정말로 왜 수능은 만들어졌는가? 답은 자명하다. 학생들은 대학에 가길 원하고, 각 대학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수한 학생이란, 대학에 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을 말하는데, 이를 달리 말하자면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능력, 즉 대학수학능력(大學修學能力)이 뛰어난 학생'이 된다. 여기에서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즉 수능이 생겨난 것이다. 수능의 각 영역, 즉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은 대학수학능력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즉 대학에서 학문하는데 필요한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외국어 능력, 사회탐구 능력, 직업탐구 능력, 제2외국어/한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 수능의 각 영역 시험이다.

이 영역들 중 제1교시에 치러지는, 그래서 수능의 첫 단추에 해당하는 영역이 바로 언어 영역이다. 언어 영역은 시험과 영역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 수학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치러지는 시험이다. 이 글에서는 수능 언어 영역이 측정하고자 하는 언어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입 시험인 수능 언어 영역을 통해서 보편적인 국어 능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수능 언어 영역의 평가 목표

수능 언어 영역 시험은 대학에서 원만하고 능률적인 수학을 위하여 요구되는 우리말 사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과 경험을 통한 듣기, 쓰기, 읽기 등 우리말 사용 능력을 범교과적인 제재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시험이다(문영진 외, 2004). 여기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이라는 표현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수능이 대학 수학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평가하되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다루고 있는 범위 내에서 출제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수능 시험의 도입 취지를 고려한다면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잘 배웠는가를 측정하는 ‘성취도 평가’보다는 대학에서 얼마나 잘 배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적성 평가’가 되어야 맞다. 그러나 대입 시험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적성 평가를 지향하되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교육 내용의 범위를 무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펴낸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습 방법 안내’(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를 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보인다.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되, 특정 학년이나 특정 교과에 국한하지 않고 범교과적 내용을 소재로 활용한다. 지문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생활·언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글을 선정한다.

정리하자면, 수능 언어 영역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국어 능력을 평가하되, 그 범위와 수준은 당해 응시자들이 적용받은 국어과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게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2012년(2013학년도 수능)까지는 7차 교육 과정이, 2013년(2014학년도 수능)부터는 2007 및 2009 개정 교육 과정이 각각 내용과 수준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능 언어 영역이 평가하고자 하는 국어 능력은 어떤 하위 능력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능 언어 영역의 평가 목표를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능 시험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교육평가에서는 평가를 통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바, 즉 평가 목표를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의 두 차원에서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내용 영역이란 학습자의 학습 내용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수능 언어 영역에서는 내용 영역이 국어과 교육 과정의 영역을 반영하여 구성되어 있다. 즉 듣기, 쓰기, 읽기, 어휘·어법 영역으로 나누어지고, 상대적으로 문항 수가 많은 읽기는 다시 문

학과 비문학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국어과 교육 과정의 여섯 영역 중 말하기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을 모두 반영한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13, 2009:10~11)에 의하면, 각 영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듣기 영역: 듣기 영역은 여러 형태의 듣기 자료를 듣고 내용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 발전시키는 능력을 포함한다. 또한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하며 말하기 전략을 파악하고 비판하는 능력도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듣기 영역은 넓은 의미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관계가 깊다.

· 쓰기 영역: 쓰기 영역은 실제로 쓰기보다 지필 평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취한다. 여기에서는 문제를 발견하고 내용을 생성하며 조직하는 능력과, 실제로 글을 쓰고 고쳐 쓰는 능력이 포함된다.

· 읽기 영역: 읽기 영역은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과, 그렇게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글의 구조와 내용 등을 재조직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나아가 문자 읽기뿐 아니라 다양한 그림 읽기, 표 읽기 등도 여기에 속할 수 있다.

· 어휘·어법 영역: 어휘·어법 영역에서는 어휘의 뜻, 지시적·문맥적·비유적 의미, 기초적인 한자, 고사성어 등의 어휘 관련 내용 및 어문 규범과 문장, 문단 쓰기, 문맥과 문체 표현 등의 어법 관련 내용을 다룬다.

행동 영역은 내용 영역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분류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행동이란 반드시 신체를 움직이는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작용까지 포함된다. 대규모 평가에서는 행동 영역의 분류가 주로 정신적인 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능에서의 행동 영역은 곧 인지 활동 유형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언어 영역에서는 언어 활동에 필요한 사고력의 유형을 행동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휘·어법 능력, 사실적 사고 능력, 추론적 사고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 유형에

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11~12)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어휘·어법: 얼마나 많은 어휘를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이를 얼마나 정확하고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능력이 어휘·어법의 측정 요소가 된다.

· 사실적 사고 능력: '사실적 사고 능력'이란 언어로 표현된 말이나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사실에 맞게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글의 내용이나 구성에 관계되는 모든 요소들을 사실 그대로 이해하는 과정에 관련되는 능력이 사실적 사고 능력의 측정 요소가 된다.

· 추론적 사고 능력: '추론적 사고 능력'이란 언어 표현과 이해 과정에서 추론을 통하여 보다 깊고 수준 높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능력은 설명문이나 논설문과 같은 언어 표현에서 내적 연관성을 종합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과 문학 작품과 같은 언어 표현에서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해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 비판적 사고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이란 언어 표현과 이해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하여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그 정당성이나 적절성 또는 가치 및 우열에 대하여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이 이에 해당하고, 비문학적인 글의 내용이나 표현에 대한 비판 능력이나 독자들의 태도에 관한 비판 능력도 여기에 포함된다.

· 창의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맞게 어떤 언어 자료를 변형하거나 새롭게 표현하는 고차적인 언어 활동이다. '창의적 사고 능력'은 언어 활동의 과정에서 자료나 텍스트의 표면에 제시되지 않은 요소를 창출해 낸다는 점에서 추론적 사고 능력과 비슷하지만, 추론적 사고 능력이 수평적인 확산인 데 비해, 창의적 사고 능력은 사고 수준의 수직적 향상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에 대한 설명이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항을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단 지면 관계상 많은 문항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먼저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2번 문항이다.

2. 이번에는 탄소발자국에 대한 학생의 발표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처음 탄소발자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게 도대체 뭐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발표를 준비하면서 탄소발자국이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탄소발자국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발생시키는지를 계산하여 그것을 발자국으로 표시한 것이지요.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탄소발자국은 무게 단위나 우리가 심어야 하는 나무 그루 수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감자칩 포장지의 탄소발자국 마크에 75g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감자 재배에서부터 감자칩 생산까지 제품당 75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은 대략 50kg 정도인데, 이 정도의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서는 10그루의 나무를 새로 심어야 한다고 합니다.

탄소발자국 제도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이와 유사한 탄소은행, 탄소마일리지 제도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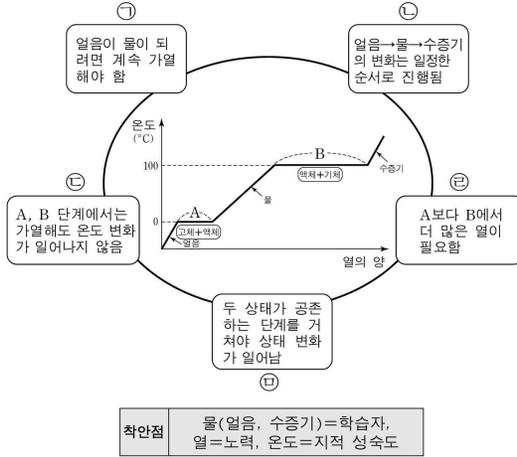
발표를 준비하기 전에는 지구 온난화의 책임이 기업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제품을 쓰느냐,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지구 온난화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소발자국은 개인에게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2. (물음) 발표자가 전달하려는 핵심적인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탄소발자국 제도의 의미와 취지를 설명하여 개인의 실천 의지를 강조한다.
- ②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약에 정부가 적극 참여하도록 촉구한다.
- ③ 탄소발자국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제도 보완을 요구한다.
- ④ 탄소발자국 제도 도입에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인 기업이 나서야 함을 주장한다.

위 문항의 내용 영역은 듣기이고 행동 영역은 사실적 사고 능력이다.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 자체를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6번 문항이다.

6.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한 실험 결과 그래프를 보고, '지적 성숙의 과정'에 대해 연상한 것이다. 연상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지적 성숙을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 ② ㉡: 학습자의 지적 성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 ③ ㉢: 노력을 계속해도 지적 성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때도 있다.
- ④ ㉣: 높은 단계의 지적 성숙은 이전 단계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⑤ ㉤: 지식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지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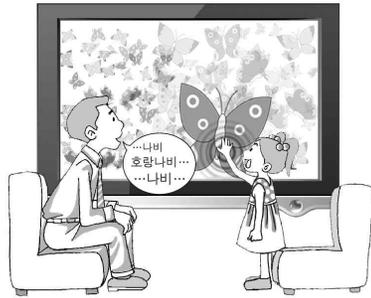
위 문항의 내용 영역은 쓰기이고 행동 영역은 창의적 사고 능력이다. 글을 쓸 때 대상으로부터 창의적으로 연상한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비록 완전히 열려진 창의적 사고가 아니고 주어진 답지의 범위 내에서의 창의적 사고이지만 간접적으로나마 글쓰기 과정에서의 창의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다음은 2009학년도 9월 모의 평가 44, 45, 47번 문항이다.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차 안에서처럼 두 개의 의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옆에는 스크린이 창문처럼 설치되어 있다. 관객들이 이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면 대화 속의 단어들에 상응하는 이미지들이 화면 가득히 나타나 입체적 영상을 만들어 낸다. 이는 소머러와 미그노뉴의 디지털 아트 작품인 「인터넷 타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같은 최근의 예술적 시도들은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경계를 넘어 작품의 생성과 전개에 수용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분명 종래의 예술관에 대한 도전이다. 종래의 예술관은 수용자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술 감상을 미적 관조로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은 ㉢예술 이외의 모든 관심과 욕구로부터 ㉣초연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관조적 태도와 함께 예술 작품 자체도 모든 것에서 벗어난 순수한 객체가 됨으로써 이제 예술은 그 어떤 ㉤권위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율적 영역이 된다. 이 때문에 종종 예술은 쓸모없는 것으로 평가절하되기도 하지만, 현실의 모든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방 공간으로 승화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최근의 예술적 시도들이 예술을 상호 작용 공간으로 만들 경우 미적 해방 공간마저 일상적 삶의 긴장과 갈등, 그리고 예술 이외의 관심과 욕구로 얼룩지고 마는 것인가? 넓게 보자면 인간은 세상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이란 세상과의 ㉧부단한 상호 작용의 결과이다. 상호 작용이 외적·내적 요인으로 인해 긴장과 갈등을 낳을 때, 인간의 경험은 대립과 분열 속에 빠지며, 이것이 지속될 때 삶은 위기를 맞는다. 반면 각각의 상호 작용의 고유성이 보호되면서도 이것이 하나의 전체

속에서 통일될 때 인간의 삶은 ㉔극치를 이룬다. 존 듀이는 이러한 통일성에 대한 체험을 ㉕미적 체험으로 간주한다. 물론 이러한 미적 체험은 현실적 삶에서 실현되기 어렵다. 오히려 이것은 예술 작품 속에서 상이한 요소, 행동, 사건, 주체들이 고유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통일성을 이룰 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듀이는 예술의 신성화가 아니라, 예술의 세속화를 원한다. 대립되고 분열된 일상의 수많은 상호 관계와 경험들은 이 세상 속에서 미적 체험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㉖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예술적 시도가 이러한 미적 체험을 실험하고 연습하는 장을 만든다면, 이는 예술 작품을 넘어 삶 속에서도 미적 체험을 성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44. ㉑~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데 수용자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예술 작품을 예술가만의 창작 결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 ② ㉒: 수용자가 완결성을 갖는 작품을 변형하면서 이를 감상하는 것을 말한다.
- ③ ㉓: 실용적, 윤리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욕구 혹은 과학적 호기심 등 예술 작품 자체를 향유하려는 것 이외의 관심과 욕구를 말한다.
- ④ ㉔: 사람들이 삶의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예술 작품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㉕: 한 인간이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자신의 삶에 대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45. <보기>의 입장에서 '예술의 세속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응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 세상은 의지의 표현이며, 이 의지는 스스로를 보존하려는 맹목적 충동일 뿐이다. 이 충동은 하나가 만족되면 새로운 충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인간은 맹목적 충동의 사슬이 불러일으키는 불만족과 갈등에 시달린다. 미적 관조는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며, 인간은 잠시나마 이를 통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 ① 예술의 세속화는 자기 보존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
- ② 예술의 세속화는 상호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결국 예술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것은 아닐까?
- ③ 예술의 세속화는 역으로 예술을 인간의 맹목적 충동에 종속시킬 위험성을 갖는 것은 아닐까?
- ④ 예술의 세속화는 오히려 인간이 현실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것은 아닐까?
- ⑤ 예술의 세속화는 미적 관조를 현실 세계로 확산시키므로 삶의 통일성에 대한 경험을 가로막는 것은 아닐까?

47. ㉠~㉣의 사전적 의미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어떤 현실 속에서 벗어나 그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하다.
- ② ㉡: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 ③ ㉢: 마음을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림.
- ④ ㉣: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다. 또는 그런 관계에 있다.
- ⑤ ㉤: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취나 경지.

44~47번 문항의 내용 영역은 읽기 중 비문학(예술 지문)이다. 44번 문항의 경우 행동 영역이 추론적 사고 능력으로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문면

에 명시적으로 주어진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문맥 정보를 활용해 숨겨진 의미를 추론할 필요가 있다. 45번 문항의 경우 행동 영역이 비판적 사고 능력으로서, 지문과 〈보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올 수 있는 비판적 반응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다. 47번 문항의 경우 행동 영역이 어휘·어법 능력으로서, 글에 사용된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능 언어 영역은 국어 활동의 다양한 부문을 내용 영역으로, 다양한 사고력 유형을 행동 영역으로 설정하여 대학 수학에 필요한 국어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행동 영역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언어 수행 차원이 아닌 사고력의 차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데서, 수능 언어 영역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은 매우 고차원적인 국어 능력임을 알 수 있다.

3. 보편적 국어 능력 평가로서의 수능 언어 영역의 한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능 언어 영역은 초·중등교육 기간 동안 길러진 다양한 층위의 언어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능 언어 영역을 보편적 언어 능력 평가로 활용할 수 있을까? 예컨대 내가 수능 언어 영역에서 받은 점수를 바탕으로 나의 절대적인 국어 능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을까? 나의 수능 성적 통지표에 찍힌 언어 영역 등급이 1등급이라고 해서 내가 최고 수준의 국어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까?

수능 언어 영역 점수를 통해 대략적인 나의 국어 능력 수준을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능 언어 영역을 보편적 언어 능력 평가로 활용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는 수능이 일종의 상대 평가라는 점에서 오는 한계이고, 둘째는 해마다 치러지는 수능 시험 간에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오는 한계이며, 셋째는 선다형 시험이라는 점에서 오는 한계이다. 이 세 가지 한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수능은 일종의 상대 평가이다. 상대 평가라 함은, 쉽게 말해 전체 집단 속에서의 나의 순위에 의해 나의 시험 결과가 판단된다는 뜻이다. 예컨대 내가 100점 만점에 91점이라는 점수를 받았다고 할 때, 이 점수를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91점이라는 점수가 전체 집단에서 몇 번째 순위에 해당되는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와 상대되는 개념이 바로 절대 평가인데, 절대 평가는 순위와 관계없이 절대적인 점수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에 비추어 나의 시험 결과가 판단된다는 뜻이다. 예컨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면 학습 내용을 잘 성취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내가 91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을 때 나는 학습 내용을 잘 성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능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선택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능의 목적이 학생 선발에 있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은 그해 응시한 수험생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순위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학생을 선발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수능 언어 영역에서 내가 100점 만점에 91점이라는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91점이라는 점수를 가지고 내가 절대적인 의미에서 어떤 수준의 국어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수능에서는 예컨대 100점 만점에 91점이라는 점수(이를 원점수라 한다)를 그 해 응시한 수험생 집단에서의 내 점수의 순위를 바탕으로 정해지는 새로운 점수(이를 표준 점수라 한다)로 변환하여 알려주고 있으며 대입 전형에서도 표준 점수가 활용되고 있다. 수능 성적 통지표에 들어 있는 정보로는 표준 점수 외에 등급과 백분위도 있으나 이 역시 절대적인 능력 수준을 알려주는 정보가 아니라 전체 응시자 집단에서의 위치를 알려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수능 성적 통지표에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나의 절대적인 능력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에 수능이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라면(그래서 수험생들이 성적 통지표에 표준 점수가 아닌 원점수를 받게 된다면), 수능 언어 영역

을 통해 절대적인 국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그것은 해마다 치러지는 수능 시험 간에 절대 난이도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러한 차이가 생기는가? 그것은 해마다 수능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 집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작년 수능 언어 영역에 응시한 수험생 전체의 원점수 평균이 100점 만점에 60점이고, 올해 응시한 수험생 전체의 원점수 평균도 100점 만점에 60점이라고 가정해 보자.(물론 학생이 받는 성적 통지표에는 원점수가 아닌 표준 점수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이때 작년과 올해 시험이 똑같이 평균이 60점이기 때문에 작년 시험과 올해 시험은 난이도가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작년 응시자 집단의 수준과 올해 응시자 집단의 수준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은 한 그렇지 않다.”이다. 만약 작년 응시자 집단이 올해 응시자 집단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집단이었다면 평균 점수가 똑같이 60점이라 하더라도 작년 시험이 올해 시험보다 더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올해 응시자 집단이 작년 응시자 집단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집단이라면 똑같은 60점이라 하더라도 작년 시험은 올해 시험보다 더 쉬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균 점수 60점이 말해주는 난이도는 절대적인 난이도가 아니라 올해의 응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인 난이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수능에서는 절대적 난이도가 아닌 상대적 난이도를 지향하는가? 당연히 매해 응시자 집단이 달라진다는 것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만약 작년 응시자 집단이 올해 응시자 집단보다 월등히 뛰어난 집단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올해의 절대적 난이도를 작년 시험 수준으로 조정하여 출제한다면 수험생들의 반응은 대부분 “작년보다 시험이 어려워졌다.”라고 나오게 될 것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수능 출제와 관련된 정책은 수험생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입 적격자 선발의 기능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게 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어렵다고 또는 쉽다고 느끼는 주체는 전년도의 응시자

집단도 아니고 익년도의 응시자 집단도 아닌 바로 당해 연도의 응시자 집단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당해 연도의 응시자 집단에 맞추어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매년 6월과 9월에 수능 모의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당해 연도 응시자 집단의 수준을 파악하여 11월에 치르는 수능의 원점수 평균을 작년과 유사하게 맞추고자 하는 데 있다.

이처럼 수능에서의 난이도가 절대적인 난이도가 아닌 상대적인 난이도이기 때문에, 설사 수능이 절대 평가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어떤 해에 시험을 치르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의 정확한 국어 능력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물론 매년 치르는 시험들 간의 절대적 난이도 차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난이도 차이를 고려하여 점수를 통계적 기법에 의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내가 올해 시험을 치르고 받은 점수가 91점이라고 할 때, 만약 올해 시험이 작년 시험 수준으로 출제되었다면 올해 내가 받은 91점이라는 점수는 작년 시험의 몇 점에 해당하는지를 통계적 기법에 의해 산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비 검사의 시행이나 가교 문항의 사용 등의 기법이 함께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는 문항에 대한 정보를 시험 전에 노출시키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입을 위한 경쟁적인 시험인 수능에서는 사용하기 곤란하다. 결국 매년 치르는 시험 간의 절대적인 난이도 차이가 존재하고, 그러한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통계적 기법도 수능의 경쟁적 속성 때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능 언어 영역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응시자의 절대적인 국어 능력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와 다른 상황을 가정하는 김에 극단적인 상황을 하나 더 가정하여 판단해 보자. 만약 현재의 수능 언어 영역과 똑같은 유형의 문항으로 절대 평가이자 매년 치르는 시험 간에 난이도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 국어 능력 평가를 만들어 시행한다고 한다면, 이 경우만큼은 이러한 '수능

형' 국어 능력 평가를 통해 응시자의 절대적인 국어 능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가능하지만 한계가 존재한다.”이다. 이는 현재의 수능이 대규모로 치러지는 시험으로서 모든 문항이 선다형(주어진 답지에서 정답을 고르는 유형, 소위 찍기 문제)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어 능력에는 담화나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구성하거나,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담화나 글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능력은 선다형 문항으로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주어진 답지에서 정답을 가려내기 위해 사고하는 것과 순수하게 자신의 생각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능에서 측정하는 행동 영역 중에는 창의적 사고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5개의 답지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창의적 사고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창의적 사고라고 말하기 어렵다.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여섯 개의 영역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선 말하기는 수능 언어 영역의 하위 영역으로 설정조차 되어 있지 못하는데 이 역시 선다형 문항이 갖는 한계 때문이다. 말하기 능력은 직접 말하기를 수행하게 하고 그것을 직접 평가해야만 평가의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는데, 선다형 문항으로는 이러한 방식이 불가능한 것이다. 쓰기는 수능 언어 영역의 하위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글을 산출하기 직전까지의 사고 과정을 측정하는 간접 평가의 방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쓰기의 모든 영역을 평가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쓰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선다형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이다. 수능에서 말하거나 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가의 본질에 좀 더 접근해 있는 듣기나 읽기(비문학과 문학)의 경우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바로 담화나 글의 길이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상적인 듣기나 읽기에서는 예컨대 50분의 수업이나 한 권의 책처럼 어느 정도 긴 담화나 글을 이해하는

활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수능에서는 문항 풀이에 필요한 짧은 담화나 글의 이해 능력만 평가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 밖에 문법과 관련된 어휘·어법 단독 문항의 경우는 문항 수가 많아 봐야 두 문항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법 능력을 충분히 평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국어 능력의 전 부분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으려면 평가가 어떠한 형태를 띠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선다형에 한정하지 않고 측정하고자 하는 평가 요소(능력)에 적합한 다양한 수행적 평가 방식을 사용하면 된다. 직접 말하거나 쓰기 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짧은 담화나 글뿐만 아니라 긴 담화나 글 이해 능력도 평가하게 하는 등 평가의 범위를 확대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학급 단위에서 교사가 오랜 시간을 거치며 개별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대규모 단위에서 치러 내기에는 시행 시간도 많이 걸리고 채점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비용도 만만찮게 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다형 문항을 통해서도 국어 능력의 수준을 모든 부문에서 적절하게 추론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것은 연구를 통해서 가능하다. 선다형 문항 자체로는 국어 능력의 일부만을 평가할 수 있지만, 선다형 문항을 통한 평가 결과와 평가 목표에 적합한 수행 평가 결과 간에 높은 정도의 상관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예컨대 동일한 집단이 수능 언어 영역의 쓰기 평가에서 얻은 점수와 실제 글쓰기 수행 평가에서 얻은 점수 사이에 높은 정도의 상관관계가 성립한다면, 즉 수능 언어 영역 쓰기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실제 글쓰기도 잘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된다면, 수능 언어 영역의 쓰기 평가가 비록 간접 평가이더라도 쓰기 능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동안 수능 성

적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서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최근 들어 수능 성적 자료가 연구자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4. 맺음말

수능 언어 영역 시험은 대학 입학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해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대학 수학에 필요한 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따라서 수능 언어 영역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대규모 평가라는 제한 조건 안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그동안 충실히 성취해 왔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수능 언어 영역 시험을 보편적인 국어 능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태생적으로 상대 평가이고, 동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규모 선다형 평가이기 때문에 국어 활동의 전 부문을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언어 영역 시험은 1993년에 처음 실시된 이래 많은 국어 능력 평가의 모델이 되어 왔다. 지식 평가에서 벗어나 국어 활동의 다양한 부문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층위의 언어적 사고력을 다양한 형태의 문항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을 선도해 왔다는 점에서, 수능 언어 영역 시험은 언젠가 더 훌륭한 평가 도구의 개발로 인해 사라지게 되는 날이 온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나라 국어교육사와 교육평가사에 그 이름을 선명히 남기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매뉴얼-언어 영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습 방법 안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대행(2005),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추이 변화-언어 영역”, 대학수학능력시험 10년사 I, 한국교육과정평가원.